특별기고

대한민국에서는 농업 농촌이 없어도 된답니까?

이상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농업과 농업연구사

지난달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통과를 위하여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과연 농촌진흥청이란 조직의 존치에 대한 당위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향후 농업과 농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고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인가? 왜 농촌, 농업에 대해서 인수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조차도 이렇듯 홀대를 받아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약 두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점에 대해 일러두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 지곳지곳한 보릿고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식탁에 사시사철 신선한 채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수입개방화에 따른 값싼 중국산 저급 농산물과 맞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도시민의 피곤한 심신을 달래주는 농촌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농촌진흥청이 있음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결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작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그간의 치적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범 지구적인 식량 및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더욱 확대 강화하여 국가에서 관리하여야만 하는 농촌진흥청을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폐지한다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현실과 악 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매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전쟁에서 군량미는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석유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곡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지 재테크 수단으로 농산물펀드(Agri-fund)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향후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국민의 식량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경제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고 적용해서도 안되는 것이 바로 농업과 식량이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문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주 접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계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농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아마도 이번 결정을 내린 인수위원장은 물론 그녀의 후손들도 그 혜택을 받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녀들도 그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당연히 농업·농촌·농업인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해야할 일이 아닐까?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며, 개발된 기술은 농업인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연구·지도가 연계된 조직이다. 연결고리를 끊고 연구기능만 떼어내어 출연연구소화 한다는 것은 비교우위의 경제논리가 그 내면에 깔려있다. 만일 사업성이 있다면 삼성 또는 LG 등 기업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 수익성보다 공공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토양을 조사해서 농업인에게 알려준들 무슨 돈이 될 것이며, 영농철이면 골치덩이인 병과 해충을 분류해서 특성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알려준들 무슨 이득이 될 것이며, 고품질의 쌀 품종을 개발해서 돈 없는 농민에게 팔아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렇듯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 보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사업에 투자하고 관련 정부조직을 유지하여 왔던 이유인 것이다. 결국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업인에게 환류되는 서비스의 부재를 초래할 뿐이며, 그 피해는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될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자생력의 상실과 함께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단언컨대,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건강하게 가꾸며,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우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두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한다. 농촌지역 의원들은 농촌에서 농업인을 위해, 도시지역 의원들은 소비자를 위해 봉사하기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그들은 출마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이다. 부레인을 알지만 현역 및 미래의 국회의원께 감히 충고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기고

한글 학회를 빛낸 임경재 선생님

한글학회 창립 100주년(2008.8.31)에 즈음하여 새 해에는 한글학회를 세우고 가꾸어 빛낸 분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한글새소식(2008.1월호) 창립 100돌 특집이다.(2페이지를 열고 보니 한글학회를 빛낸 인물로 첫 번째 정 머리에 내고향 포천 출신 임경재 님이 소개되었다.)

1876년 내고향 포천 군내면에서 탄생하여 1955년 돌아가시기 까지 님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한글학자로 한반도 말·글 운동과 후배 양성에 몸바친 선현이었다. 1896년 관립 외국어학교(일본어 학부)를 졸업하였으며 1907년 학교법인 광성의숙(현 휘문중고교) 교사가 되었으며 1908년 휘문의숙 학감이 되었고 1918년 휘문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21년 휘문고보 교장 재직 중, 직·간접으로 주시경선생의 영향을 받은 최두선, 장지영, 이병기, 김윤경 등 15명의 동지와 함께 조선어 연구회(조선어학회), 조선국어연구학회(1908년 창립)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조선어연구회의 초대 간사장을 맡아 초창기 한글운동에 이바지하였다.

1932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위토와 함께 경매될 지경에 이르자 각계각층의 성금을 모아 빚을 갚아 충무공의 유적과 유하를 멸실 위기에서 구하였으며 현충사 중건에도 적극 참여활약하는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광복된 조국 땅에서 당시 거주하던 아산군 자치회장으로 추대되어 혼란기 치안 유지에 앞장섰다. 또 1946년~1947년까지 사립 온양중학교 학교법인 재단(중학원장) 원장으로 취임, 온양지방의 육영사업에 헌신한 바 있다. 한글학회에서는 님의 공헌한 바를 잊지 않고 길이 빛내고자 한글새소식(2008.1 제425호)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님은 한글 연구, 교육사업(육영재단), 애국운동에도 빛나는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부기→간이상업부기(1908), 신편은행부기학(1908) 등의 저서를 남겨 당시만 해도 상업·경제학의 여명기였던 시기에 빛을 밝혀 주는 등불의 역할을 한 위대한 선각자였다.

내고향 포천 출신으로 우리 말(한글) 연구를 하고 그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선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님을 연구하고 계승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임경재 님의 후손으로는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임두빈 씨가 있다.

김 창 종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수필가
-한글학회를 일군 선현 조선어 연구 회초대 간사장

교육에세이 64

교사의 생각이 크면 학생에게도 동일 현상이 나타난다

이호연
영동초등학교 교장

"불가능이란 단어는 지도자의 사전(辭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두바이에서는 '실패'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슴은 사자보다 더 빨리야 잡아먹히지 않고, 사자는 사슴보다 더 빨리야 굶어죽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1+1=2'가 아니라 '1+1=11'을 만들자" "두바이에서 자금 벌어지는 기적은 내 계획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도 빨리 보고 싶다."

1995년 왕세자로 지명되자마자 사막을 신천지로 바꿀 21세기 비전을 발표한 뒤 오늘날 중동 신흥국가 두바이의 천지개벽을 주도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Sheikh Mohammed) 국왕은 무엇보다 말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상상력은 시인으로서 그의 시상(詩想)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셰이크 모하메드(Sheikh Mohammed) 국왕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적인 메세지를 접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생각을 크게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크게 할 수 있을까?

Donald J. Trump & Bill Zanker의 공저 「Think Big and Kick Ass : 크게 생각하고 박력있게 행동하라」라는 책에서 제시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니 학급 경영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한다.

① 부드럽게 걷되 당당한 태도를 지닌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태도를 개발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도록 만든다.

②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굉장한 날이 될 거야.", "내 주변에는 오늘 뭔가 굉장한 것을 이룰 좋은 기회가 많아"라고 생각한다.

③ 항상 미소에 최고를 걸쳐다. 옷차림, 습용차 등 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몇 가지만 사더라도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매사에 성공 이미지를 반영하도록 비싸면 빌려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신의 의심을 버리고 이를 버린다. 아무도 미래에 대해 확신을 못하므로 당신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목표를 향해 나가라.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해 줄 것이다.

⑤ 자신의 큰 자아를 자랑스러워한다. 긍정적으로 여기고 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을 하라.

⑥ 생각을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한다.

⑦ 크게 사고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진정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⑧ 큰 생각과 큰 행동을 일치시킨다. 가능한 빨리 시작한다. 반드시 작게 시작하되 한번에 한 걸음씩 더 큰 일을 한다.

⑨ 큰일을 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⑩ 멘토를 찾는다.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향상하도록 도울 사람이다.

⑪ 압력을 재치 있게 이용한다. 이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⑫ 큰 뜻을 품는다. 몇 년 내지 몇 십 년 앞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끌 빅 트랜드를 생각한다.

⑬ 성공을 향한 중간 지점에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계속 크게 생각한다. 안전을 생각하는 순간 크게 생각하는 능력이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진다.

⑭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항상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한다. 계속해서 자신을 뛰어 넘을 때 엄청난 성공이 이루어진다.

⑮ 큰 성취 과정에서 큰 시련을 대비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향후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실패를 분석한다. 미래에 대한 가장 대담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흑백논리에 익숙해 있어 생각하는 유형이 단순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열거된 생각 유형을 적용할 때 다양하게 크게 생각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크게 바꿔 확산적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자유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바란다

이 한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N지사장

늙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무거운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변하는 세월을 함께 하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억척같이 살면서도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일 갈수록 사회·경제 여건상 노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슬픔이고 힘들어지는 세상이다.

이제는 호강을 누리며 고생의 대가를 받아야 할 오늘날 주인공들이지만, 핵가족화, 부양 의무의 희피 등으로 노인들은 자꾸만 소외되고 그 입지가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란 국가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교육, 육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1가구 1자녀 내지는 2자녀 출산으로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 1.16명에도 못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발의하여, 2007년 4월 2일 국회의 의결로 법안이 통과 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1차적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는 모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및 사회연대의식이 동반돼야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룰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 소외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치매에 가족이 무너진다"라는 모 일간지 기사제목에서 보듯이 가족 중 1명이 치매에 걸리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가정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와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며,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류이며 시설급여는 6개월 이상 장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나누어 실시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다(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험료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가족의 부담 경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 할 것이다.

노인비율이 현재 우리 포천지역도 15% 대를 훌쩍 넘고 있으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30년에는 36%에 이를 전망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자유기고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순간은

이 은 호
의정부여자정

요즘 극장가에서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 영화의 내용이 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핸드볼 결승전은 너무 가슴이 졸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경기를 위해 자신들이 흘렸던 땀방울이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란 결실로 맺어짐에 아쉬워했던 선수들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한다. 그 때 그 희환의 눈물은 2008년 1월 29일 한·일 핸드볼 예선 재 경기를 이김으로써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기쁨의 눈물로 승화될 준비를 마쳤다. 2008년 모월 모일 핸드볼 결승전날이 선수들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문득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보았다. 대학에 합격한 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날? 아니면 결혼식 날? 기쁜 날들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 볼 수 있는 노년이 됐을 때 최고의 순간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날을 정하기로 하겠다.

그럴 2008년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얼마나 있게 될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아직 특별한 일이나 계획은 없어서 달력에 메모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직장인인 나에게 있어 2008년 최고의 순간은 꿀맛 같은 휴식을 맛볼 수 있는 공휴일이 될까? 그렇다면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세어보자. 신정, 설날,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근데 추석은 왜 이렇게 짧은 것인가!

그러나 내가 여느 이들처럼 짧은 연휴 때문에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그 순간에, 마땅히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할 날들을 빛을 바래가고 있었다. 공휴일엔 어디로 놀러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등등 너도 나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빡빡한 계획을 짜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게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날들은 본연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해져 가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태극기의 물결과 만세 함성이 가득했던 3.1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4.13,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에 자유와 정의를 쟁취하고자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4.19, 그 어떤 무력 진압도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지 못했던 5.18이 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뜻 깊은 날 6.6, 민족상잔의 비극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현재진행형으로 처절히 맛보게 하고 있는 6.25, 대한민국 최초 헌법을 제정을 기념하는 7.17, 나라 잃은 설움을 말끔히 씻을 수 있었던 8.15, 우리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개국한 것을 기념하는 10.3,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11.17 등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든 최고의 순간이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위에 나열했던 순간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순간은 자신들의 생애에 있어 최선의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생애 최악의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 옛사람들의 환희 또는 고한(苦恨)같은 알맹이는 사라지고 '빨간 날', '공휴일'이란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으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한 몸 기꺼이 나라에 희생한 옛사람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라의 경사스런 날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닌,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3.1절 등 국경일은 그래도 4.13 등의 기념일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4.19혁명 기념일 등은 유래도 확실치 않은 '빼빼로 데이' 같은 상업성 짙은 기념일보다도 기억이 덜 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달력을 꺼내 국경일과 기념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날들을 바라보자. 기쁘거나 혹은 뼈에 사무치게 슬펐던 그 날을 살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로. 앞으로 우리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후세대가 우리가 만든 최고의 순간을 발판으로 더욱 최고인 순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